

술에 길이 있다

— 즐겁게 마시자 —

● **필자약력** : 1914년 서울 태생 / 연희전문학교 문과 졸업 / 잡지사 · 출판사 · 신문에 39년간 / 한국일보 논설위원 · 소년한국일보 주간 역임 / 현재 충남방직(주) 감사

● **저서** : 수필집 5책, 탐정소설집 · 단편소설집 · 창작동화집 · 평론집 각 1책, 소년소설집 13책, 기타 번역 편저 다수 / 제2회 대한민국 방송상 수상 / 제3회 한국출판학회상 수상.



〈趙 豐 衍〉

문사와 술

제목의 한국일보 〈메아리〉난에 ‘酒道有段’이라는 글이 실렸다. (鄭達永 著)

거기에는 시인 조지훈(趙芝薰)이 ‘주도유단’이라는 글에서, “술을 먹는데, 18계단이 있어서, 그 술 드는 꼴과 주량의 정도로서 그 사람의 인품과 교양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써여 있다. 부주(不酒=못먹지는 않으나 안마심)에서 폐주(廢酒=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 세상으로 떠나게 됨)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계단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원문은 읽지 않았으나 아마 이 늘어놓은 18가지가 그 들의 핵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술먹는 자세에 그런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가는 동안에 자꾸 18가지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갓 재주 있는 문사의 윗트에 지나지 않게만 여겨져 공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새마을호’ 열차가 달리는 중에 연도에 보이는 인가를 가리키며,

“저것은 김서방네집.”

“지금 지나친 것은 이서방네집.”

하는 것처럼 아무 흥미가 없다. 나는 芝薰이

생존시에 함께 ‘빈대떡집’에 가서 더러 술잔을 나누는 적이 있지만, 그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요, 잘 먹는 편이었다. 독특한 경상도 사투리로 익살스런 이야기로 우리를 웃겼는데, 그럴수록 술맛이 나게 했다. 나보다는 6살이 젊으면서, 뺨속에는 노인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芝薰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 ‘주도유단’설도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어른스럽어서 궁리해낸 것이리라.

원래 문사라는 사람들은 술을 그냥 먹지 않고, 그 술을 소재로 글을 만드는 버릇이 있다.

그 원조는 당나라의 이백(李白)일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백은 술못(酒池)에 배를 띄우고, 물(아니, 술)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푸려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술하게 지어낸 술의 시는, 술이 취해 떠 오른 상(想)을 적은 것이라기보다도 시를 짓기 위해 술을 들었다는 흔적이 엿보인다.

이 백은 과연 술에 대해 시를 지은 사람이고, 술 기운으로 만장의 기쁨을 토한 사람이지만 술먹는 끝에 기쁨이 나온 것이 아니다. 기쁨을 토하기 위해 술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술에 관한 작품을 남겨 놓았다. 그 가운데서도 장진주(將進酒=술에 바쳐 권하는 노래)가 으뜸이라고 한다.

그대 못 보는가?
황하(黃河)의 물은 천상(天上)에서 오도다.
팔팔 흘러서 동해(東海)에 이르러서는 다
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 못 보는가?
고당(高堂)의 명경(明鏡)은 백발(白髮)을
슬퍼한다.

아침에는 청사(靑絲)와 같더니, 저녁에는
눈(雪)이 되도다.

인생의 뜻이름이 모르미 기쁨(歡)을 다할
진저

금준(金樽)을 헛되히 달에 대하도록 하지
말라.

하늘이 내 재질(才)을 낳아, 반드시 쓸모
가 있으리라.

천금을 뿌려 없애면 다시 돌아오는 것
양을 고고, 소를 잡아 또한 즐거움을 삼
으라.

마땅히 한번에 3백 잔이 될지어다.

(이하 생략)

이 작품에는 과장이 심하다. 인생을 황하의
흐름과 비교한다든지, 술을 먹어 인생의 기쁨
을 다하라든지, 한꺼번에 술잔을 입에 대었다
하면, 3백잔을 들이키라든지, 현실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초현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을 쓸 적에 그는 결코 맹충한 정신으
로 붓을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과장
되었으면서도 애주가와 문인들의 공감을 일으
키는 '썩 잘된 시(傑作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마셔 3백잔을 들이키고도 이런
결작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는 반드시 거나
할 정도로 술이 취한 뒤에 정신차리고 엮은 시
임을 알 수 있다. 취한 정경을 촬영할 때에 그
카메라마저 취해 있지는 않았다.

이처럼 술을 즐기던 옛 중국의 시인들은, 술

을 취재하기 위해 술과 친했다. 도연명(陶淵
明)의 <음주시>나 <연우 독음(連雨獨飲)>도 그
렇고, 백낙천(白樂天)의 <권주시>나 <비파와
술>이 모두 그렇다.

문사라는 존재는 옛날에는 가장 학식이 많
고, 지성이 넘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며,
언제나 야(野)에 있어서 고고한 정신을 민중
앞에 기염과 함께 의연(毅然)했기 때문에, 모
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사라면 대접을 받
지 못할 뿐더러, 무엇인가 세상에 돌고 있는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단자로 생각되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존재로 알고 있었다.
이는 일제하에서 한글로 문학을 엮은 사람에
게 대한 경계와 멸시에서 절정에 달했었다.

'반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본 식민지 정책
에 비판적이고, 줄곧 토속적(민족적)인 생활
을 추구해 민족의 황민화(皇民化)를 음으로 양
으로 저해 요소가 되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
이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다.

문사들은 술을 즐겨 마셔, 문우(文友)가 곧
술벗(酒友)이 되어 이따금 만나 술잔을 주고
받은 것으로 울적함을 달래었다. 수입은 별로
없는데다가 붓을 들지 않을 때는 술잔을 드는
터이라 가정 생활이 원활치 않고, 풍파가 잦았
다. 옛날의 당나라 시인이 술을 취재하기 위
해 술을 먹던 시대와는 다른 의의가 현대의 문
인에게 있었다.

문학가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문인과 접촉
하려면 우선 그들의 술에 어울려야 했었다. 술
에 대작을 못할망정 그 분위기에 휩쓸려야 했
던 것이다.

요즈음도 문사는 우대를 받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글로 문장을 엮는 데에 멸
시하는 자는 없고, 자탄(自歎)한 끝에 먹는 술
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술을 먹게 되었다.
그 점이 식민지 시대와 다를 뿐, 문사와 술의
관계는 여전히 깊은 사이에 있다.

술에서 나온 문학작품

옛날부터 문사에게 술을 뗄 수 없다. 그것은 문사가 세상 일을 경륜(經綸)함에 가장 고도한 두뇌를 지녔고, 술은 그들의 상상력을 무한한 경지로 이끌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술은 그러한 경지의 사람이 먹어야 옳게 먹는 것이요, 술자체가 가장 올바르게 소화되는 경우라고 나는 생각한다.

술을 취재하기 위해 드는 문사의 경우를 앞에서 말했거니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백이나 도 연명·두보 같은 '직업 문인'은 하도 많은 작품을 쓰다 보면,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옛날 선비로서 취흥(醉興)이 시상(詩想)을 자극해 훌륭한 작품을 낳게 한 경우도 허다하다. 어찌 그것을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마는, 아래에 몇편을 골라 보았다.

한 잔 먹세그녀 또 한 잔 먹세그녀 꽃 꺾어 산(算)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녀,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줄라매어 매어 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 곱게 꾸민 상여의 만인(萬人)이 울어베나, 어욱새(억새풀) 떡갈나무 백양(白楊)속에 가기만 하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소소리바람(회오리바람)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원숭이) 휘파람 불제야 뉘우 친들 어찌리?

鄭 澈(1536~1693)

취한 손님 소매자락 휘여잡고 만류하실 적 잡히었던 소매자락 찢어집니다.

옷자락 찢기움이 아깝진 않소.

다만지 은정(恩情)이 끊일까 저어 합니다.

扶安 기생 李桂生

술이 취에 욕정을 일으킨 손이 치맛자락을 가볍게 거부하는 옛날 기생의 모습이 엿보인다.

아침에 돌아오기를 날마다, 봄옷을 전당 잡히고

매일 강두(江頭)에서 취한채로 돌아오도다,
술빚(酒債)가 쓸쓸히 가는 곳에 있구나
인생 70, 예로부터 드물다.

杜 甫(당 시인)

이 시는 두 보가 장안(長安=당나라 수도)이 적군(賊軍)에게서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을 무렵의 심정을 그린 시인데, 그것은 그동안 술을 무진 먹어 왔으나 술빚 진 것만이 생각나고, 인생 70을 산 것이 슬픈 느낌이었다. 이 시에서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이 나왔고, 7순(만69세)을 맞이한 것을 '고희(古稀)'라고 하는 습속이 생겼다.

도 연명의 <음주>에서 한 대문을 따련다. 이 시는 꽤 장시인데, 한 도막이 10귀로 되어서, 모두 18도막이다. 이 지나긴 시 속에는 술의 아름다움, 술 먹는 처지의 즐거움, 술 먹는 이의 자세, 도덕·율법, 그리고 자기가 먹어 온 체험이 유려한 문장에 엮여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 제13도막만을 옮기겠다.

손(客)이 있어 항상 함께 살면서 술을 들고 안 들이 서로 경계가 분명하다.

한 선비는 오래 혼자 앉아 취하고, 한 지아비는 연중 정신이 말뚱말뚱, 취한 친구와 맨송맨송한 친구가 서로 웃고 서로 얘기하지만 서로 취했는지 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규규한(놀라서 바라보고 어이없어 함) 태도는 얼마나 어리석으냐?

뿔내는 쪽(술 취한 편)이 약간 영리한듯 취한 '영감'에게 한 말씀 드리오리다.

해가 저물거든 불이나 켜고 드시구려.

이 가운데의 취객은 도 연명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 술잔만 들면 해가 저물어도

컴컴한 속에서 마냥 먹었던 모양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충고를 발한다. <사원> (사전의 1종) 속편에, 이 시를 인용해서 “갓갓해서 속된 것에 따르지 않음의 뜻”이라고 풀었다.

술 먹지 않는 사람을 특별히 업신여기지는 않지만, 술 먹는 사람을 놀라서 보고 어이없어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는 <지주(止酒)>의 시다.

평생 술을 끊지 않은 것은
술을 끊으면 기쁨이 없기 때문.
저녁에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안 들면 일어나지 못한다.
날이 날마다 이제 그만 먹자 해도 영위(營衛=기혈의 작용)가 잘 안 통한다.
단지 알고 있도다 술 끊음이 즐겁지 않은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도다 술 끊는 것이 몸에 이로운 것을
하지만 처음으로 깨달음은 끊는 것이 좋다는 것.
오늘아침 진실로 끊었노라.
이제부터 내리 술을 끊어서
장차는 부상(扶桑)의 섬(전설적인 선경)으로 가련다.
묵은 얼굴이 사라지고 맑은 얼굴이 되어
천만년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이것은 역설적으로서, 술을 끊을 바에야 부상의 섬이라는 실제로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부상으로 갈 생각을 하니 정신이 도무지 몽롱하고 쓸쓸하다는 뜻인지 어쨌든 부상으로 가는 것이란 불가능한 것임과 같이 술 끊는다는 말이 허황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로서니 왜 이 <지주>라는 시를 썼을까? 그는 꽤 몸을 술 때문에 다쳤을 것이다.

백 낙천(白樂天) 또한 술을 잘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는 술을 테마로 한 시를 허다하게 남겼지만, 30여편은 오늘날도 술 좋아하고 글 좋아하는 사람 입에 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권주>의 제 1절만을 뽑아 본다.

자네에게 한 잔 권하노라. 그대 마다 하지 말게.

자네에게 양배(兩杯=2잔)를 권하노라.

자네 어찌 생각지 말게.

자네에게 석 잔째 권하노라. 그대 이제사 알리라.

얼굴 낮이 오늘이 어제보다 늙고, 마음 속은 취할 때가 잦을 때보다 나은 것을.

천지는 영원하고 장구(長久)하여 백토(白兔=달)와 적조(赤鳥=날)는 서로 쫓으며 달린다.

죽은 뒤에 황금을 쌓아 복두칠성을 기대 느니보다는 살아 있을 때 한 초롱의 술을 푸는 것이 낫도다.

이런 권주를 하면서 벗과 대작하는 광경이 참으로 신선놀음임에 눈 앞에 선할 정도로 그럴듯하다.

어찌 이들뿐이라? 밤하늘의 못별처럼 많은 시인들이 술을 애호하고, 그것을 문학의 힘을 빌어 천하의 선비들의 공감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동양보다는 술을 읊는 작품이 희귀한 서구 문학에서 하나만 뽑아 보자. 아르투르 랭보우(1854~1891)의 <명정선(酩酊船)>의 끝 부분.

아아 물결아, 한번 네 권태(倦怠)에 미어 잡고는

숨 실은 배의 수맥(水脈) 끌고 있음을 뒤쫓아 탈취하지도 못하고, 표기(標旗)의 불길의 교만(驕慢)을 가로지를 수도 없고 배다리(船橋)의 무서운 눈초리를 헤어나

해염칠 수도 없구나.

(小林秀雄 역에서 중역)

꽤 긴 시작품이지만, 프랑스 말에서 직역하지 못한 약점으로 끝부분만 엇본 것이지만, 전편에 흐르는 시정신은 자기가 탄 배가 취한 것으로 설정한 특이한 것이다.

읽는 중도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이 37세에 요절한 19세기 말의 천재 시인의 재간이지만, 프랑스 문학의 태두 小林秀雄의 명역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 속에는 노회(老獪)한 영제국(英帝國)에 대한 반감이 들어 있다. '숨 실은 배'란 영국의 방적 공장에서 쓸 원면을 실은 배임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배가 만취했으면서 항해를 지속한다는 실정이다. 배는 취했고 탄 사람은 멀쩡하다. 뽕보우의 걸작으로 치는 시다.

詩人처럼 술 먹는 경지

술에 18계단이 있는 것은 趙芝薰의 발견이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술 먹는 자세에서 규정된 몇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들어왔다.

● **주봉(酒朋)** ; 늘 함께 술을 드는 친구로, 오래오래 같이 먹어도 피차 아무런 사고가 없는 벗. 이런 벗은 먹으면 먹을수록 유쾌하고, 자세도 안정된 사태이다.

● **주객(酒客)** ; 술을 좋아하는 사람. 늘 좋아하니 술 취해 난동은 없고, 술을 아끼고 술 좌석을 고른다.

● **주군(酒軍)** ; 술을 마냥 먹는데, 때를 지어 다니기 좋아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좋냐?"고 물으면 "그야 술이 아니냐?"고 대답할만하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도량이 넓고 매사에 험험하다. 재물에 탐욕함이 없고, 술만 내면 좋아한다. 알코홀릭(알코올 중독)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술 때문에 패가 망신은 하

지 않는 정도.

● **주호(酒豪)** ; 술을 호쾌하게 마시는 사람. 늘 마시지는 않더라도 한번 주석에 앉으면 두주(斗酒)를 불사(不謝)한다는 주량이 큰 사람. 술 먹고 실수가 있으면 주호가 아니다.

● **주성(酒聖)** ; 술을 점잖게 모범적으로 마시는 사람. <삼국지>에 보면, 서막(徐邈)이 탄 사람은 반드시 맑은 술(淸酒)만 들었는데, 그 태도가 훌륭해 모두 그를 '주성'이라 불렀고, 아울러 그가 즐기던 맑은 술 자체를 또한 '주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주선(酒仙)** ; 최고 수준의 애주가. 술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서,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 아무도 그가 주사(酒邪=술에 취해 나쁜 짓 하는 버릇)를 부리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뿐더러, 애주가들이 항상 우러러 보는, 술에 관한 한 고차원(高次元)의 인물. 다음은 똑 떨어져,

● **모주 병정** ; 일은 안하고 만날 술에 취해,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술이라면 걸신 들린 아귀처럼 아무데나 끼어 드는 취한(醉漢). 옛날 병정들이 모주(탁주)를 잘 먹는데서 나온 속어.

● **주태백(酒太白)** ; 이 태백(李太白)이 술을 몹시 좋아했다는 데서 나온 속 말인데, 술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종의 알코올 중독자이다. 세상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가 가까이 오를 꺼려하는 존재다.

이렇게 유별(類別)하는 특별한 금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자세를 보고 남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뿐이다'.

스스로 주성·주선을 의식하면 벌써 자신을 속되게 하는 것이요, 모주 병정이나 주태백에 이르러서는 그런 의식할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 밖에도 '술고래'가 있는데, 그것은 술 맛도 모르고, 고래 물 켜듯이 많이만 먹는 것을

제일로 삼는, 이를테면 <삼국지>의 장 비(張飛)같은 사람이다.

또 주색 잡기(酒色雜技)가 붙어 다니는 사람으로, 술 먹고 계집 쫓고 노름판에 다니는 악덕의 표상을 말한다. 주색 재기(酒色財氣)는 여자를 욕구하기 위해 술을 마셔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두 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먼 이야기이다.

술은 모름지기 시인처럼 마셔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재(詩材)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든 취흥에서 작품이 잉태(孕胎)하는 것이든, 자기가 즐겨 마시는 술을 아끼는 마음이 철저히 하는 시인 밖에는 구하기 어렵다.

한국의 현대 시인들도, 내가 사권 범위의 인물에서는 시인이 역시 술을 잘 먹고, 다음에는 화가들이었다. 시인과 화가들과의 술 마시는 자세가 딱 구별되는 것이지만, 화가는 술이 지나한 중에 작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다르다. 시인은 머리로 시를 쓰고, 화가는 육체의 일부인 손으로 붓을 들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없지는 않다. 요절한 김모(金某) 시인은, 술을 하도 좋아한 끝에 알코홀 중독증에 걸렸다. 더 살았더라면 주옥 같은 작품을 기대했으려만 아깝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이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술은 어른한테서 배운다

옛날 중국의 체형(體刑)에 벌주(罰酒)라는 것이 있었다. 술을 얼마만큼한 분량을 먹어야 하는 형벌이다. 주태백이라면 얼싸 좋다 하고 달려들 것이지만, 술 소리만 들어도 취해 자빠지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무서운 형벌은 없다. “차라리 매를 때려 주면 주었지, 술만은 질색이오.”

하고 애걸하는 자가 나온다. 못 먹는 자에게 술 먹으라 하니, 그것이 형벌이다.

이런 체질의 사람을 빼고는, 남자라면 대개 술잔을 들고, (근자에는 여성 음주자도 늘었다) 어차피 평생을 먹는 것이니까, 그 먹는 자세와 남 앞의 예의는 지켜야 쓴다는 것이 예전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술을 가르쳤다. 가르친다고 못 먹는 술을 주량이 높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 것을 덜어놓고 억누르지 않고, 술의 선택에서부터 친구의 가림, 안주의 마련들을 어른이 지도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술을 드는 것을 허락받은 것은 23세였다고 기억한다. 온 식구가 동양극장(東洋劇場)에 연극 구경을 갔다가, 귀로에 마침 경양식집이 있는데, 그리로 아버지가 앞장서서 들어갔다. 당연히 아버지는 맥주를 자시고, 우리 형제는 카레라이스 따위 밥참을 먹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날 따라 선친은,

“너희들도 먹어라.”

하고, 맥주를 여러 병 따개 했다. 처음으로 어른 앞에서 맥주를 먹었는데, 조심스럽게 먹었다고 맛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맥주를 어른과 함께 드는 것은 그다지 기이하지 않다. 몇해 전에 明洞 어느 맥주집에서 金載元박사가 그 부인 따님과 함께 자리를 잡더니 생맥주를 시켜 드는 것을 보았다. 독일 생활이 오래였던 金박사는 가족과 맥주를 드는 것이 아마 예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나는 7순을 맞이했다. 밖에 나가야 단스럽게 공개적으로 잔치하는 것을 피하고 집에서 가족·친척과 함께 오붓하게 술과 고기를 들었다. 이때 내 상에는 만아들과 사위와 그리고 그 아들인 내 외손자(고교 3년생)가 같이 앉았다. 맥주가 운반되었다. 맥주를 중심으로 하고, 탄 주류를 피한 것은, 혹 술 먹고 주정하는 자가 나올까 두려워해 묶은 맥주로 택한 것이다.

그런데 매인 앞에는 이미 유리잔이 놓여 있

고, 맥주가 오자 켈켈 따는데, 사위가 제 아들의 잔에 맥주는 붓는 것이었다. 개명하기는 金 박사네 가족 이상이다.

첫 잔은 아비가 따라 주는 술을 먹더니 이외손자놈이 다음부터는 제가 자작으로 병을 기울여 앉은 자리에서 서너 잔을 꿀꺽꿀꺽 들이킨다. 내가 물었다.

“오늘 공부는 안해도 되니?”

고3이라 입학 시험 준비중이다. 그놈은 “예”하고, 태연하였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는 23세에 처음으로 맥주를 들었지만 훨씬 이전 고교 시대에, 이미 어머니는 나와 찾아온 친구들을 위해 술상을 차려 주셨다. 술은 약주였다. 하지만 안주로 손수 만들어 주신 음식은 지금도 천하 일품으로 여겨진다. 선머슴들이라 술을 먹으면, 음성이 커지고 노래가 나온다. 온 집안이 시끄럽다. 하지만 싫은 낫 하나 없이 술은 주전자가 빌 적마다 또 새주전자가 나왔다.

이것은 훗날 생각해보니 밖에 나가 술집에서 학생이 먹는다는 것이 안 되었고, 젊은 아이들이 술이 취하면 혹여 실수가 있을까봐, 집에서라면 어디 실컷 먹어 봐라 하는 배려였는 듯 하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먹는 술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잔칫집에 가서나 술을 잘 먹었고 실수가 없었다.

그것은 장성해서도 습성이 변하지 않아서, 늘 주위를 살피가며 먹었고, 통행 금지 제도가 생긴 뒤부터 내가 술자리에 앉는 시간이 내 스스로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마냥 도사리고 앉아서 술만 퍼 먹을 수가 없었다. 내 술은 초저녁부터 시작되어 여덟시는 끝맺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술의 스승은 아버지 말고도 있었다. 나는 주성으로 손꼽히는 국 일농(鞠一農) 밑에서 한 2년 일한 적이 있었다. 나보다 나이 20세가 위인 언론계의 대선배다. 이 분이 배양 술을 드

는데, 대개는 자택에서 자신다. 그 부인이 만들어 내는 안주를 가장 좋아하는데, 과연 음식의 명인이었다. 나는 꽤 자주 그 술의 대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분은 한번 좌정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배설을 어떻게 하는가? 곁에 요강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그가 꼼짝도 않고 술을 꾸준히 자셨다는 것이 소중한 것은 아니다. 술을 들면 취중의 화제가 남의 이야기가 나오기 쉬운 것인데 그는 단 한번도 남의 얘기를 술 안주로 끄어낸 적이 없다. 사업 이야기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야기는 모두 인생 철학에 관한 묵직한 이야기였다. 취흥이 높을수록 그의 얼굴은 웃음에 가득차고 꺾꺾 웃는 것으로 시종했다. 이런 분을 모시고 먹으면 신경이 쓰이지 않고 술이 맛있다.

술 먹으면 재미있는 이들이 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정 지용(鄭芝溶)·이 상범(李象範)·이 승만(李承萬)·조 혼파(趙欣坡)·유한철(劉漢徹)·이 진섭(李眞燮)씨 들은 술 좌석의 이야기가 포복절도할 익살이 많았다.

양화가 이 중우(李鍾禹)·산수화가 벽 관식(卞寬植) 두 화백은 한 동안 새벽에 우리집을 뚝뚝 두드리는 대선배였다. 우리집 앞골목에 근처에서 소문난 해장국집이 있는데 거기로 향하는 길에 나를 권하는 것이다. 벌떡 일어나 식구몰래 쪽대문을 열고 나간다. 그리고 셋이서 해장국 집에서 술과 국밥을 먹는 것인데, 술은 대포로 두 잔 이상은 안 들었다. 설초(雪焦 = 이 중우)의 말씀이 해장술은 한 잔도 안 되고 석잔 이상도 안 되고 꼭 두 잔이라야 한다는 설이다. 나는 이후 꼭 해장 술은 2잔을 먹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 분들은 예술이나 그림에 관한 이야기는 도무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세상에 흔해빠진 속된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였다. 두 분 모두 20년 위인데 3인이 공통되는 화제는 있었다.

남은 허는 이야기는 없었다.

나는 이렇게 술 먹는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 술 좌석에 자주 끌려 나갔다. “아무개라면 마음 놓고 같이 들 수 있다”는 설이 주당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공술을 꽤 많이 얻어 먹고 유쾌하게 먹어왔다.

술은 맛돈으로 먹는 것

술에 빠져서 꽤가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유명한 이야기가,

“집아, 지금까지는 네 속에 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내 뱃속에 들어 살게 됐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좀 과장이 있다. 집을 팔아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술에 걸드려 색을 탐내다가는 꽤가 해도, 술 그것만으로는 집까지 삼켜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술을 외상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외상술을 먹고 그것을 갚을 때는 술은 이미 깨어난 때이므로, 돈을 거저 주는 것 같아 입맛이 쓰고, 어떤 이는 외상값 연기해 달라는 뜻으로 또 그집에서 외상술을 먹는다.

내 술친구 중의 한 사람은 처음 들어간 술집에서도 반드시 현금으로 청산을 하지 않고 외상으로 달아 놓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나중에 수표로 외상값을 치르는데, 어느때는 사원을 시키기도 한다. 사업 운영에 체신이 짝인다.

내 직장의 부하 가운데, 월급날이면 술집 여자가 사무실 앞에 마냥 기다려 외상 값을 받아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리 외상을 저도 사무실까지 쳐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술 먹는 자의 실력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술은 취하는 것인데, 그 끝에 반드시 깨는 것이다. 정신이 맑았을 때, 술을 원만하게 되지 않으려면, 술빚을 지지 말 일이다.

나는 본위 아니게 술빚을 지고 있다. 석천 오 종식(昔泉 吳宗植)씨는 신문사에서 나의 상사였다. 이 분이 저녁 늦게 일이 끝나면 거의 어김없이 우리들을 데리고 대포집으로 가는데, 가면 우리들이 마음 놓고 술을 퍼 먹었다. 그리고 계배(計盃)는 반드시 석천이 치루었다.

하도 얻어 먹기만 해 미안적으므로 한번은 버리고 별려서 내가 모시려고 좀 조출한 술집으로 모시고 먹었더니, 나중에 셈을 치르려하니 벌써 영감이 내고 난 뒤였다. 언제인가는 이 술빚을 갚겠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차일피일 하는 동안에 석천은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술빚 값을 날이 완전히 없어졌다.

시인 김 소운(金素雲)도 내게 술빚을 잔뜩 주고 세상을 떠났다. 해방 직후에 그는 지전을 심부름 주머니(信玄袋)에 잔뜩 집어 넣고 나를 사무실로 찾아와 술 먹으러 가자고 권했다. 돈을 쓸데가 있길래 가지고 온 것이리라.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돈의 가치가 없기는 하지만 주머니 가득이라면 꽤 되었다. 나는 일부러 허름한 술집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안주는 마음껏 먹었다.

다음에는 일본 동경(東京)에서 신세를 졌다. 여비가 술 사 먹을만큼 넉넉지 못했으니까 소운에게 신세를 지고 유쾌히 먹었다. 그가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이 술빚 생각은 잊지 않았으나 기회가 없던 중에 그 또한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손 기정(孫基禎)씨와는 일제때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었다. 전쟁에 물자가 퍽박했는데, 술은 더했다. 일본사람에게는 사날에 한번 한되짜리 배급표가 차례갔으나 우리 한국인은 3주일이나 한달만에 한장 배급되었다.

그래서 술 좋아하는 우리는 안달을 하고, 오후 다섯시에 파는 탁주를 늘어섰다가 겨우 두어 사발 얻어 먹을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날 손 기정씨가 우리집 대문을 두드리더니 술 배급표 한장을 주고 갔다. 고마

운 것을 이루 다 말하라? 그 배급표는 들고 나가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물건과 바꿀 수도 있는데 손 씨는 내가 술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갖다 준 것이다.

이 술빛 아닌 술빛을 갚으려고 하나 그가 술을 줌처럼 안하는 우연히 만나면 그 생각만 떠올랐지, 술 먹자는 말이 안 나왔다. 그는 술을 멀리하기 때문에 근력이 여전한지 모르겠다. 86·88의 큰 국제 게임에, 이 거인의 활약이 기대된다.

끝으로 술 먹는 이의 금기 사항 몇가지,

① 술은 즐겁게 먹는 것. 무슨 까닭이 붙은

(말하자면 향응에 속하는)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② 술 먹고 주정하려거든 술을 입에 대지 말라.

③ 주량에 꼭 찬 사람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것은 일종의 벌주. (부도덕 행위)

④ 상사에게 울분을 말할 때 음주 상태에서 하는 것은 술 그것을 목되게 하는 것.

⑤ 자기 체질에 맞는 술을 마시라. 값이 비싼 술이 반드시 좋은 술은 아니다.

⑥ 술 취해서 너무 떠들어 주위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질서 문란. <끝>

4 천만의 신고정신 다져지는 국가안보.